

동작구, 신청사 개청식 개최...국내 최초 관상복합청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5일, 개청 45주년을 맞아 새 출발을 알리는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구민과 미래 비전 및 도약의 의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동작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개청식은 식전행사와 기념식으로 나눠 다채롭게 진행됐다.

먼저, 식전행사는 ▲주민 합동 플래

시몹 공연 ▲기념식수 및 테이프 커팅 ▲핫플레이스 라운딩 ▲어린이 '동키몹키' 제조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핫플레이스 라운딩에서는 청사 내부에 조성된 높이 15m의 초대형 미끄럼틀 (가칭)'D-Lide'를 선보였다. 'D-Lide'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조형물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변신한다.

지난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해 향후 청사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하 1층에서는 주민들이 작

성한 '1·5·10년 후 동작구와 자신에게 보내는 소망엽서'를 담은 '희망메시지 타임캡슐'을 봉인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 ▲45년 기록 영상 상영 ▲비전 및 새 CI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80년 개청부터 신청사 건립까지 담은 영상으로 동작구청의 발자취를 돌아본 후, 영상·레이저 퍼포먼스를 통해 구의 미래 비전 '자랑스러운 세계 최고 행복도시, 동작!'과 이를 담은 새 CI가 공식 선포됐다.

강동구, 생성형 AI 기반 홈페이지 챗봇 ‘강동이지(EASY)’ 시범운영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오는 15일부터 생성형 AI 기반 홈페이지 챗봇 서비스인 '강동이지(EASY)'의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강동이지(EASY)'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을 넘어, 강동구 주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양한 행정 정보를 수집·학습한 뒤 주민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맥락과 의도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답변을 내놓는 시스템이다.

이번 챗봇 서비스는 대표 홈페이지

내의 보건소, 어린이회관,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통합도서관 등 총 6종의 생활 밀접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한다. 주민은 '강동이지(EASY)'와 대화하듯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자치구들이 개별 기관 단위로 제한된 AI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강동구가 구 전반의 핵심 기관의 중요한 정보를 통합한 챗봇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한발 앞선 행보다.

향후, 구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답변의 정확도와 서비스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이지는 단순한 디지털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구민 맞춤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행정에 접목해 다른 자치구보다 한 발 앞서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5회 금천패션영화제 개최... 패션과 시가 만나는 국내 유일 영화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와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5회 금천패션영화제'를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과 G밸리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패션영화제'는 2021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패션 전문 영화제다.홍보 포스터는 전으로 만든 슬레이트를 활용해 '패션과 영화의 만남'을 표현했으며, 트레일러는 로봇이 슬레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해 금천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영화제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작품부터 인공지능(AI)이 참여한 실험적인 작품 등 총 50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패션, 트렌드, 스타일 부문에 더해 인공지능(AI) 부문이 신설돼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강조한다.

개막식은 9월 12일 오후 6시에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에서 열리며 ▲축하공연 ▲패션쇼 ▲사전제작지원작 '사라지지 마' 상영 등이 준비돼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영화제 본선 진출작은 9월 13일에서 14일까지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점에서 선보인다. 당초 접수된 경쟁작품 1,134편 중 본선에 오른 50편이 영화제 기간 내 상영된다.

부문별 주요 작품으로는 ▲ '패션' 부문의 〈수의〉(감독: 신지우) ▲ '트렌드' 부문의 〈사요나라, 사랑해, 사요나라〉(감독: 홍선혜), 〈이스라의 인터뷰〉(감독: 김성현) ▲ '스타일' 부문의 〈로타리의 한철〉 (감독: 김소연) 등이 있다.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일대는 '2025 금천 지씨(GC)페스타'가 지밸리 워크(Week) 행사, 1인 가구 플라마켓, 금천구 도서관 북페스티벌, 반려동물 축제, 금천 이(e)스포츠 페스티벌, 열린문화공원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금천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든다.

재정부담 없이 정책시설 확대... '민관동행사업' 2차 후보지 공개

민관동행사업 첫 제안서 접수...강서구 '개화산역'에 중산층 액티브 시니어 복합공간 조성

공모 당선자의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 기재부와 협업하여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공동형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관동행사업')'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확산된다. 민관동행사업은 시가 대상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창의적인 기획을 제안받아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이다.

2024년 서울시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 도입된 민관동행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가 공개한 저이용 사유지에 인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결합하여 시 재정 부담 없이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다. 기존의 공공 주도 '정부고시사업'과 민간 주도 '민간 제안사업'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민관동행사업 1차

대상지로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옛 성동구청소 특계5부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 3곳을 공모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구로구 부지에는 주민편익생활편의 등 시설을 갖춘 행정복합시설, 송파구 부지는 공연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 강서구 부지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 및 일자리 복합 공간이 제안된 바 있다.

특히,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난 8월 민간사업자로부터 최초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전문가단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은 '미래

형 시니어 복합시설'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중산층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하우징 공급과 은퇴세대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도심형 스마트생활허브를 핵심으로 한다.

이는 지난 5월 서울시가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 이후 첫 민간제안사업으로 어르신 맞춤형 주택과 일자리·여가시설 등 시 정책을 모두 반영한 제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주차타워 ▲시니어 및 지역주민 대상 데이케어센터 ▲청년과 시니어 간 세대통합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로구와 송파구 2곳도 연내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시범사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새로운 민간투자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민관동행사업 본격 확산을 위해 올해 2차 공모 후보지로 서초구와 광진구 2곳을 사전 공개하고, 연내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초구 서초동 333-8 일대는 옛 서초소방학교 부지(약 1만9,840㎡), 광진구 능동 18 일대는 어린이대공원 후문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약 7,800㎡)다.

시는 이들 부지에 대해 지역 여건과 정책 방향을 고려해 용도 등을 정한 뒤, 공모지침을 마련해 연내에 기획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정성 기자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도로 용량 확대하고 기능 향상한다

중앙분리대 철거 공간 활용 차로확장(4→5)·도로용량 증대... 신호교차로 설치는 보류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기본계획 수립 당시 '보행 친화'와 '녹지 확충'을 중심으로 설계됐던 기존 계획이 현재의 교통 상황과 도시 여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생활환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시는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로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도로 용량을 지금보다 늘려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한다. 우선 만성적 차량 정체를 완화하기 위

해 도로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해 4차로를 5차로로 늘린다.

늘어난 차로는 교통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 예정이었던 신호교차로는 전면 보류해 차량 주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시는 단계적으로 교통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서남부 동서 생활권을 연결하고,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폭이 넓어 이용하기 쉬운 보행육교 설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댐터공원 조성 등 새로운 방식의 공간 활용안을 적극 추진해, 교통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주민

들의 생활 편의와 도시 활력을 함께 담아내는 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되어 향후 대체도로가 추가로 확보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후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평면화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성 기자

사실상 거주 세대수로 요금 부과, 최대 1만1050원 추가 감면

시, 9월 청구서부터 개선 효과 확실히 확인... 취약계층 부담감↓ 감면액↑ 기대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체계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1,500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

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어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에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

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이던 10,800원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t121.seoul.go.kr)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청

수사한

경기공유학교

아이들

세계창의력 올림파이어
2025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대회 대상 수상

저용준 학생
용인미르아이 경제대 연계 AI SW 공유학교
블록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강

경기공유학교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학생 맞춤수업**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경기도 학생에게 제공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 초3~고3 학생 및 통학 연방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홈페이지 신설
• 31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지역공유학교 및 프로그램 신청 가능
(지역별 상시 모집 중)

• **프로그램 출결·이수 내역** 확인 가능

경기공유학교 검색



gong-u.goe.go.kr